■ 디모데 로리

1958 : 미국 북 캐롤라이나 출생.
1961-76 : 미국과 한국에 번갈아 가며 거주 (부모님 : 권익수와 권애순 전주에서 봉사하는 선교사)
1977-81 : 미국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의 캘빈대학 입학. 미술과정에서 학사 수여. 81년 4월에 4학년 (FBA) 작품전 갖음. 81년 9월에 쉐리 루빈과 결혼하여 그녀와 같이 로울리라는 새이름 채택. 서미시간 예술화랑에서 개인전과 판화전시회 개최 (1981. 12)
1981-83 :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에 거주하며 여러 매체로 작품활동 시도. 색연필, 흑연, 백묵, 파스텔, 잉크, 컬러아취, 아크릴과 유화 : 이 매체들을 혼합 사용하거나 따로 사용하여 나무, 종이, 캔버스 위에 작품, 창작 또한 음각, 석판인쇄, 목판, 오노프린트등도 시도)
1983-84 : 한국에 거주하며 한지에 주로 수채화와 목판을 사용한 작품활동 전개

● 다음 응모전에 참여

○ 그랜드 래피즈의 미술전람회 축제 (1980, 81, 82, 83)
○ 중부 미시간 선화작품전 (1980, 81)
○ 에스센슌 루터교파의 미술전시회 (1981, 82, 83)

RESOLVE: Betrayal/1984 woodcut 9cm × 12cm

Timothy Grubbs Low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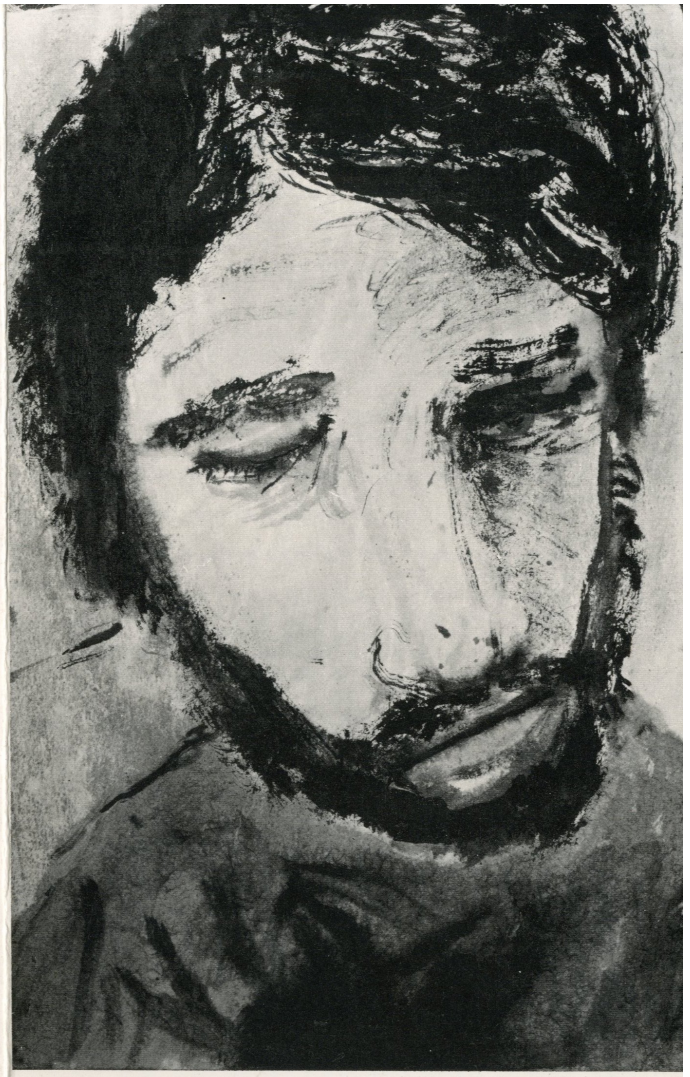
1958 born in North Carolina, U.S.A.
1961-76 alternatingly living in South Korea and U.S.A. (parents: Merrill and Alma Grubbs - missionaries serving in Jeonju, South Korea)
1977-81 attending Calvin College (Grand Rapids, Michigan) in the Bachelor of Fine Arts program
senior BFA exhibition (April 1981)

married Sherrie Rubingh (September 1981) and with her took a new family name: Lowly

one-person exhibition of paintings and prints at the West Michigan Gallery of Art (December 1981)
1981-83 living in Grand Rapids, Michigan, working in various media (colored pencil, graphite, chalk, pastels, ink, collage, acrylic, and oil paint; mixed or separately, on wood, paper, and canvas.. also intaglio, lithography, woodcut and monoprint)
1983-84 living in South Korea working on paper, primarily with watercolor and woodcut

Contributed to the following competitive exhibitions:
Grand Rapids Festival Art Exhibit 1980, 1981, 1982, & 1983
Central Michigan Drawing Show 1980 & 1981
Ascension Lutheran Art Exhibit 1981, 1982, & 1983

(detail) Self-portraint in Mind/1983 ink + watercolor



PICTURES between HERE and THERE

Tim Grubbs Lowly

팀로리

1984. 7. 7 – 11

전 북 예 술 회 관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감상인으로서, 다른 한편 이 화가를 잘 알며 또한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보아 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야훼의 노래를 부르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 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네 생각 내 기억에서 잊혀진다면, 내 만일 너보다 좋아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시편 137 : 4 ~ 6〉

저는 이 성경 귀절이 화가의 스튜디오 안의 작업대 위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 귀절은 주님께 충실하려 하는 화가의 기도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은 하나님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기 위한 투쟁을 드러내고 있으며, 주님의 노래를 끊임없이 찬미하려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오한 믿음을 향한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그림에서 저는 바로 그의 주변에 마주치는 사람들이나 물건들, 다시 말해 친구나, 아내 또는 자신의 얼굴이라든가, 때로는 성경속에서 마주치는 인물들을 접하게 됩니다.

작가는 작품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미급했던 부분까지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읍니다.

작가는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부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읍니다.

마찬가지로 감상자인 우리들도 그의 그림에 내재 해 있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됩니다.

그의 그림들을 볼 때, 종종 왜 이 여자의 손은 그렇게 크며, 저 남자의 머리는 저렇게 클까? 그녀의 팔은 왜 그리 가는가? 천사들이 정말 저렇게 생겼을까? 그 이미지들은 완전히 사실적이진 않지만, 어린아이가 세상을 인지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사물이 어떤 식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견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 더 광범위한 미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새로운 이미지들은 우리 자신을, 자신의 견해를 초월할 것을 요구할른지도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누가 알 수 있겠읍니까!

작품중 몇점은 어둡고, 외로움이나 고통, 죽음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이 작품들을 보고 있을 땐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저는 등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는, 바로 우리들의 고통, 슬픔, 죽음을 일깨워 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도외시 할까요?

작가는 그것이 아름답다거나 혹은 추하든지간에 상관하지 않고 형체를 갖춘 만물의 생명체와 갖가지 인간경험을 정성을 다해 살피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읍니다.

작품을 보면서 저는 어느 그림에서 여인이 하고 있듯이 가면을 제거하도록 도전을 받았읍니다. 우리의 가면 밑에는 종종 상처와 편협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읍니다.

우리는 드러난 채로, 벗은 채로, 남겨지기를 원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계속되고 우리는 다시 삶에로, 하나님에로, 희망에로 인도되어 집니다.

저는 그의 작품에서 동시에 두개의 세계가 혼합되었음을 느낍니다. 기쁨과 슬픔의 세계를, 심지어는 쓰고 있는 도구도, 컬러아취, 수채화, 연필, 잉크등 까지도 이런 다양한 세계를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읍니다. 작품을 감상함에 따라 질문이 생겨납니다. 빌라도와 예수를 '권세와 고통' 그린 작품을 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떠오릅니다.

고통이 힘을 지니고 있는가? 진실로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여우와암탉' (헤로데왕과 살로메)이란 작품에서 헤로데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살로메의 요청이 함축된 의미를 깨닫고 하얗게 변해 버립니다. 그의 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녀의 힘의 본질은? 그들의 권위는 타당한가? (에스더와 왕을 그린 그림에서 처럼) 누가 최후의 언도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읍니다.

화가는 우리가 보고, 사고하며, 의문시 하기를 원합니다. 답을 지니고 있진 않지만 그가 자신과 더불의 해결하고저 하고 있는 그런 의문을……

아마도 우리는 답의 실마리, 빛의 작은 점들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희망의 조그만 전달자인 작은 새들이 지저귑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외칩니다. 남의 나라 낯선 땅의 한복판에서 즐거워 하라고!

ANGELSWORD

1983 watercolor 30cm × 20cm

I write as a viewer, like you, but a viewer who knows the artist well and one who has watched many of these pieces come to life.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foreign land? If I forget you, O Jerusalem, let my right hand wither! Let my tongue cleave to the roof of my mouth, if I do not remember you, if I do not set Jerusalem above my highest joy! Psalms 137:4-6

These verses hung above the artist's worktable in his studio. They voice his plea to remain faithful to the Lord and the struggle to realize his ultimate vocation to be God-centered. There is a call for a deep child-like trust, to continue singing the Lord's song.

In the paintings I see people and things that are right around him; familiar faces of friends, his wife, or his own appear in the pictures-sometimes on Biblical characters. The artist tries to be open and vulnerable in his work. Open to hear God speak in all of life around him. So we, the viewers, are pointed to the center, to God.

I wonder when looking: "Why are her hands so big?", "Why is his head so big?", "Why is her arm so skinny?", "Do angels really look like that?". The images seen are not completely realistic but seem to show a child-like perception of the world. These images may jar our preconceptions of what things "should" look like and may point us to a broader beauty (to God?). Perhaps these new images ask us to go beyond ourselves, our own viewpoint. After all, who really knows what angels, let alone Jesus, looked like?

Some of the pieces are dark and seem to speak of loneliness, pain, and death. These are not easy to look at and I want to turn away. They may remind me of my own pain or sorrow, and death in the world around me that I do not like to face. But isn't God there too? I think the artist is struggling to be sincere; to see life in all its forms and in all human experience-"ugly" and "beautiful"-and not shun any of it. I look and am challenged to remove my mask as the woman is doing in one painting. There are often wounds, littleness, and pain underneath our masks. We are left exposed, naked, and do not want to be left there. But the road goes on and we are pointed again to life, to God, to hope.

I see a mixture. A mixture of joy and sorrow, gentleness and power, love and hatred. Even the media used seems to speak of this mixture. Collage, watercolor, pencil, ink. We look, and questions are raised. Like in the painting of Pilate and Jesus: power and pain. "Does pain have power?", "Who is really ruling?"

In Fox and Fowl (Fatale) Herod turns white realizing the implications of Salome's 'request': John's head. "What is the nature of his power?", "Of hers?", "Is their authority valid?" (And as in the painting of Esther and the king) "Who is having the last word?" The artist wants us to see, to think, and raise questions. Questions which he may not have the answers for, but is struggling with himself. Perhaps we are shown the beginnings of answers, small points of light. There are little birds-little messengers of hope. And the angels come and tell us to Rejoice...Rejoice! In the midst of it all (in a foreign land?) Rejoice!

Sharrie Fowler